

디지털 시대 왜 독서해야 하는가

얼마 전 친구집에 놀러갔을 때 일이다. 거실에 놓인 큼직한 TV가 보는 사람도 없이 켜져 있어 TV를 껐다. 친구 왈 “왜 TV를 끄냐”, “아무도 안 보잖아. 전기 아끼려고” “끄지마라. TV가 꺼져 있으면 왠지 허전해” 그 즈음 초등학교생인 그 친구의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어서 방에 들어가 책 보라” “싫어요. 디지털 볼 거예요” 초등학교생에게 물었다. 컴퓨터에서 주로 뭐하니? “게임요” “채팅도 해요” “재는 스팸 메일도 자주 본대요” “책 많이 읽니?” “숙제로 읽어요” “독후감도 파는데 왜 읽어요?” “과외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서울 대학 가려면 책 많이 읽어야 한대요” “책, 너무 재미 없어요” “야, 넌 책도 안 읽잖아” “읽으나마나 뻘하지 뭐” 쏟아지는 아이들의 말...



우리 사회와 사회를 둘러싼 환경은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다. 새로운, 혹은 확장된 정보 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우리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기존 매체의 영역을 확장·보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체간의 통합과 새로운 매체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우리의 환경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즉 디지털에 기반을 둔 환경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다량의 지식과 정보가 신속하게 생산·보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가를 넘어 세계를 하나의 망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일방향 매체 환경을 쌍방향 매체환경으로 전환하고 있다. 매체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핵심적인 요인이 인터넷이다. 인터넷의 확산 속도는 기하학적이다.

라디오를 5000만 명이 이용하기까지는 38년, TV를 5000만 명이 이용하기까지는 13년, PC는 16년이 걸렸으나 인터넷은 4년에 불과하였다. 인터넷 이용자수는 매년 기하학적으로 늘고 있으며, PC 보급률 또한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또 다른 요인의 하나로 등장한 무선 통신 서비스 가입자수도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 인프라는 우리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디지털 시대는 정보의 종류와 정보량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따라서 거대한 양의 지식과 정보를 선택, 분석, 평가, 활용하는 능력과 창조적 가치를 재생산, 재창출하는 능력이 더욱 요구된다.

독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독서를 통해 적응력이 키워지지 않으면 쏟아지는 정보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 즉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지도 못하고 쓰레기적 정보에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 또한 영상매체가 중심이 되는 디지털 시대는 주로 직관과 느낌을 강화하는 반면에 논리와 분석력은 약화시킨다. 영상 중심의 매체 환경은 자칫 상상력과 지적 활동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

독서는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지적 활동

우리나라 초등학교생들의 한 학기 독서량은 23.3권으로 3년 전에 비해 4.9권이나 줄었다. 일본 초등학교생의 한 학기 독서량은 45.6권으로 지난 4년 전에 비해 무려 12.5권이나 증가했으며 미국 초등학교생의 독서량도 부쩍 늘었다고 한다.

“오늘의 나는 책과 어린 시절 마음껏 책을 읽게 해준 도서관이 만들었다”는 빌 게이츠의 말을 우리는 몇 번이고 되새겨 보아야 한다.



을 왕성하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는 누가 양질의 정보를 선택,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정보를 선택·가공하는 능력과 지식·문화 창조력은 독서를 통해 키워진다. 같은 자원과 재료이지만 그 속에 얼마나 고급의 지식과 정보를 넣는가에 따라 그 가치는 사뭇 달라지는 것이다.

즉 톤당 석탄은 50달러지만 철은 300달러고 알루미늄은 3000달러다. 또한 같은 알루미늄이라도 그것으로 단순한 창틀을 만들어 팔면 톤당 3천달러를 받지만, 비행기로 만들어 팔면 톤당 100만달러를 받는다. 텔레비전은 톤당 약 2만 달러지만 반도체는 톤당 80억달러이며, 소프트웨어는 톤당 400억달러다.

결국 디지털 환경에서의 독서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 21세기는 문화와 지식, 정보가 중심이 되는 사회이다. 즉 문화 창조력의 크기가 문화 중심국이 되느냐, 아니면 문화권의 변방에서 문화 중심국의 지적 생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좋은 콘텐츠 없이 도구의 생산에만 급급하여 왔다. 또한 뿌리와 줄기를 튼튼히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뿌리와 줄기를 잘라내면서 열매때기에 급급해 왔다. 이는 결코 좋은 열매도 달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독서는 지식과 정보, 문화의 토대이다. 오히려 기술이 발달할수록 독서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왜냐하면 독서는 적응력과 창의력, 상상력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도 독서의 역할과 그 중요성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산업화는 뒤졌으나 정보화는 앞서자'는 구호 아래 좋은 콘텐츠 없이 정보기와 기술자만 양산할 때, 뿌리와 줄기는 내팽개치고 열매에만 급급할 때, 문화는 뒷전이고 무너지는 재벌 살려야 한다고 아우성 칠 때, 정부가 앞장서서 '도서관 및 독서 진흥기금'을 아예 없애고, '도서관 및 독서 진흥

위원회'마저 없앨 때,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미국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디지털 시대 독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하루 30분 책읽기 교육 혁명론'을 내세우며 독서운동을 전개했다.

일본은 '어린이가 책을 읽지 않는 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기치 아래 국회의원 188명이 중심이 돼 국립국제어린이도서관을 만들고, 국회가 앞장서 만장일치로 2000년을 '어린이 독서의 해'로 정해 전 국민적인 어린이 책읽기 운동을 전개했다.

또 '어린이 독서 진흥법'도 제정하였다. 일본은 '10분간 아침 독서운동' '어머니와 어린이의 20분 독서운동' '아이와 함께 책 읽는 부모 되기' '북 스타트(Book Start) 운동' 등 책읽기 운동으로 전국을 수놓고 있다.

일본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 보다 무려 30.4배나 많고, 일본 대학도서관의 자료구입비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자료구입비에 비해 4.5배 많다.

일본의 공공도서관 수는 우리 보다 7배, 대학도서관 수는 2.9배 많으며, 공공도서관 장서 수는 14.9배, 대학도서관 장서 수는 3.6배 많다. 일본의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초·중·고 모두 1백%이다. 학생 1인당 장서 수는 초등학교 20.1권, 중학교 20.7권, 고등학교 26.8권으로 우리나라 보다 각각 5.3배, 4.7배, 6.4배나 많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생들의 한 학기 독서량은 23.3권으로 3년 전에 비해 4.9권이나 줄었다. 일본 초등학교생의 한 학기 독서량은 45.6권으로 지난 4년 전에 비해 무려 12.5권이나 증가했으며 미국 초등학교생의 독서량도 부쩍 늘었다고 한다.

“오늘의 나는 책과 어린 시절 마음껏 책을 읽게 해준 도서관이 만들었다”는 빌 게이츠의 말을 우리는 몇 번이고 되새겨 보아야 한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더라도 그 기술을 운용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특히 창의적인 사람이다. 독서를 통해 거침없이 날뛰는 기술을 잘 다스리는 창의적인 사람이 만들어진다. 이 가을, 자신의 손에 놓여진 책이 나를 도구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게끔 하고, 나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깊이 인식하자.

〈김재윤 · 탐라대학교 출판미디어학과 교수〉